

## 음우(陰雨)

하기야 전에도 특하면 친정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아내의 몸 위에 털끝만한 혐의라든 그러한 것을 가져 본 일이 없다…….

그가 아내를 집안에 맞아들이기는 신랑의 나이 열네 살 때요, 아내가 그에게로 시집오기는 신부의 나이 열아홉 살 때다. 여인의 나이 열아홉이면 이미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뒤지만 열네 살짜리 어린 남편은 아직 인도를 알기 멀었다. 아직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랑은 나이 많은 신부가 오직 징그럽게 싫었고 이미 음양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부는 너무나 어린 신랑을 안타깝게 미워하였다.

따져 보자면 피차 가난한 탓이었다.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어린 아들을 미끼로 며느리를 얻어들였고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과년한 딸을 아무데로나 치워 버렸던 것이었다.

일꾼을 얻어들인 시집에서는 못내 다행하였다. 식구 하나를 줄인 친정에서는 자못 만족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신랑은 늘 우울하고 신부는 불행하였다. 신부도

늘 우울하고 신랑도 불행하였다.

신부는 특하면 친정으로 다니러 갔다. 가난한 시어머니는 곧잘 「은 참, 그년같이 그렇게 밤낮으루 나뎡기는 년두 아마 세상에 다시 없을 게야.」 하고 탄하였다. 신랑은 물론이요, 시아버지도 별로 말이 없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귀여운 며느리를 귀여워할 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시아버지에게는 항상 민망스러웠던 까닭이리라. 친정으로 돌아간 신부가 하루나 혹 이틀을 묵고 안 들어올 때 어린 신랑은 바로 세상이나 만난 듯이 기운을 얻었다.

그러나 신랑도 언제까지 어린 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오히려 조숙하다 할 그는 혼인한 지 이태 지나 그 나이 열여섯일 때 인도를 짐작하였다.

한껏 무더운 한여름 밤 신랑은 처음으로 자기의 아낙이라고 남들이 일컬어 왔던 여인의 몸에 접촉하여 보았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비로소 내외이었다. 어린 남편은 처음 들어선 음양의 길에 얼마 동안은 아주 그 어린 마음이 혹한 듯도 싶었다. 그러나 스물한 살 먹은 아내에게 열여섯 살 먹은 남편은 역시 좀 어리다.

아내는 곧잘 얼굴에 분바르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 잠깐 뵙고 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사립문을 나섰다.

이미 전과는 달라 장성한 남편은 아내 없는 방 속에서 곧잘 고독을 느낀다. 고독을 저 혼자서는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분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를테면 단순한 욕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애정과 는 서로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보다 한 해 앞서 딴 계집을 얻어 집을 나간 아버지로 하여 한층

더한 가난살이 속에서 어머니는 남의 집으로 품삯을 팔러 다니고 아들은 공장에를 다녔다.

하루 사십오 전짜리 직공에 불과한 그였으나 그는 일러주는 이도 없건만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공덕리 자기 집에서 황금정 삼정목에 있는 공장에까지 그는 언제든지 도보로 왕복하는 터이었거니와 돌아가는 길은 일부러 진고개 편으로 잡아들어 반드시 책사예를 들었다.

결코 건장한 편일 수 없는 그다. 하루종일 일에 지친 몸은 겨우 집까지 더듬어 갈, 기력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그렇건만 점두에 서서 책이며 잡지를 뒤적거릴 때 그는 갈길의 바쁜 것도 마음의 피로도 완전히 잊었다.

자기가 욕심내고 있는 한도의 온갖 서적을 모두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다면 자기는 분명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게스리 행복이리라 생각하여 보는 그였다. 아니 그런 것은 애초에 꿈속에라도 그리는 것이 허망되리라. 삼십 전이나 사십 전 그만한 돈이면 능히 구할 수 있는 문예잡지라도 다달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할지 몰랐다.

그는 그 동안 헌책사에서 두 권의 책을 골라 샀다. 〈自然과 人生〉, 〈하이네 詩集〉이었다. 그것은 둘을 모두 합쳐서 오십오 전의 지출에 불과하였던 것이나 오히려 그의 일급보다 십 전이나 더 많은 것이라 하여 어머니는 며칠을 두고 아직도 철나기 멀은 아들을 나무랐다. 단돈 오 전의 소비도 어머니 앞에 숨길 도리가 없는 그였다. 그러나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책에 대한 욕심은 더욱 강렬하다. 어느 겨울밤 그는 참다못하여 남의 눈을 기어 슬쩍 뺨뚱보자기 밑에 감춰들었던 〈椿姬〉를 다시 슬쩍 책장 틈에 꽂고 도망칠치듯 책사를 뛰어난와 진눈개비 내리는 길을 울며 돌아간 일조차 있었다.

그는 애정이 없는 남녀의 결합이 죄악이라는 것을 어느 틈엔가 배워 알고 있었다. 자세히 검토하여 볼 것도 없이 자기 내외의 사이에 애정

이라 할 애정이 있는 듯싶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였다.

아내가 자기보다 다섯 해나 위니까? — 그러나 그러한 사이에도 얼마든 행복일 수 있는 남녀가 많다. 혹은 너무나 무식하니까? — 그것도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 조금도 아리따지 못하니까? — 그러나 이편에만 호의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그것도 그다지 문제가 아니리라.

결국 싫으니까 —, 이를테면 싫으니까 싫다고 말할밖에 없다.

그러나 애정이 없어도 아이는 생길 수 있다. 아내의 몸에서 연달아 두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둘 다 아들이었다.

다뜻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남편이 일체 소식을 끊은 뒤로 이제 는 오직 자식에게만 몸과 마음을 함께 의지하려는 늙은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잘 낳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감한 그는 결코 참사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아내에게서 두 어린것을 구한 사실이 마음에 슬펐다. 또 부끄러웠다.

그는 자기와 아내와의 관계가 오직 그지없이 추한 것같이만 생각이 되어

〈애정 없는 남녀의 결합은 죄악이다!〉

하고 새삼스러이 다시 한 번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외쳐 보면 눈앞에 버둥거리는 두 어린 생명이 아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죄악의 명확한 증적인 것같이 느껴져서 그래 그는 그것들에게조차 애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

영양이 좋지 않은 까닭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타고나기를 원체 허약한 모양이다. 어린것들은 특하면 앓았다. 그때마다 애를 태우는 것은 오직 그것들의 동생 할머니 하나이다. 열아홉 살짜리 아버지는 이를 것도 없거니와 스물네 살짜리 어머니도 가엾은 어린것들에게 대하여 그다지 정성스러운 관심은 갖지 않았다.

앓는 아이를 두고도 그는 곧잘 머리를 새로 빗고는 옷을 갈아입었

다.

「아 명준이가 앓는데 넌 또 어딜 나가니?」

시어머니가 나무라도 그는 태연히

「젠 성헌 날버덤두 앓는 날이 더 많은걸요. 별이 아버지 생진이니 좀 가 봐야죠.」

어려운 집안에 무어 차릴 것이라고 도무지 없으려면 아내는 그러한 말을 곧잘 하고는 친정으로 향하였다.

물론 그러한 아내를 그는 좀더 미워하였다. 자기 자신 어린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아내를 볼 때 마음은 조금의 용서를 두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 어린것들에게 대하여 애정을 느끼지 못하였던 까닭에 좀더 그랬다. 자기가 아내를 나무라는 마음에 대하여 아내도 역시

〈남의 말만 허는군. 그래 자기는 또 으째?……〉

그렇게 대어들 아내의 마음을 그는 미리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밤낮 아내를 미워하며 그대로 지낸다는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에 불행만 더할 뿐일 것이다.

허지만 대체 그 불행에서 서로 몸을 빼칠 방도가 쉽사리 있을 수 있으랴.

이혼? — 물론 그것도 생각은 하여 보았었다. 아니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는 한번 그 뜻을 어머니에게 암시하여 본 일조차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번에 아들을 꾸짖어 물리쳤다. 허물없이 지어미를 어찌 무단히 내칠 수 있으랴 하는 것이다. 더구나 죄없는 어린것들이 그나마 어미 없는 뒤에 그 신세가 어찌될 것이라 하였다.

먼저번의 「허물없이…… 운운」의 말에 대하여는

〈무어 허물이 있느니 죄가 없느니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가장 중대한 애정이 피차 결렬된 터이라 그래……〉

하고 항변할 마음의 준비도 있었지만 아내를 내친 뒤의 어린 자식들에 관하여서는 역시 할말이 없었다.

그가 술을 배운 것은 이 전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술이 취하여 돌아온 그는 젓먹이를 끼고 누워 곤히 잠이 든 아내의 모양을 아랫목 자기 자리 위에가 모자도 안 벗고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닫지 못하고 눈물지었다.

〈너두 불행한 여자다!……〉

하고 난데없이 그러한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한 까닭이었다.

〈괴로운 것은 내 속뿐이 아니다……〉

한방 속에 자리를 나란히 하여 이렇듯 조석으로 대하며 서로 그지없는 증오를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생각하여 볼 때 그는 슬프고 또 외로웠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씻으려고도 안하고 한참이나 아내의 자는 양을 지켜보았다.

자기 집에 들어와 이랬든저랬든 여섯 해를 살아온 아내——가난한 집안의 시집살이는 고되어 저렇게 꿍아떨어져 자는 얼굴은 제 나이보다 훨씬 시들고 쪼들었다.

도무지 어여쁜 구석이 없는 그는 곤히 잠들어 입조차 딱 벌린 모양하고 무지하고 우둔하기 짝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고 하며 그는 다른 때와는 반대로 그러한 나이 먹고 보잘것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리어 그를 사랑하여 주고 위해 주고 그래야만 할 것이 아닌가?——하고 느낀다.

〈여보, 서로 노력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내외가 서로 미워하다니…… 대체 그게 될 뻔이나 한 말이오?……〉

그는 스스로 감격함을 마지않으며 한참이나 더운 눈물로 것처럼

뺨을 적셨다……

그는 사실 그 뒤부터 아내를 사랑하려 노력하였다. 그것이 오직 자기들을 불행에서 건질 유일한 방도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말이 그렇지 그것은 적지않이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그는 노력하였다.

아내도 전처럼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자거나 깨었거나 도무지 냉담하거나 그렇지 않고 분명히 마음속에 조그마하나마 기쁨을 가지고 있는 듯싶은 눈치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얼마쯤 앞길에 광명을 발견한 듯이 느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해소로 요사이 고생이신 모양이니 가서 뵈고 하루 묵어 내일 낮에 돌아오겠다 하고 다시 친정으로 갔던 것이다.

그날 밤이었다.

하필 어미가 없는 때에 작은것이 관격이 되었다. 저녁을 갓 먹은 데다 또 제법 큰 고구마를 두 개나 먹은 것이 아무래도 탈이 난 모양이다.

하루종일 공장 일에 시달리고 돌아오면, 그는 저녁을 치르는 것이 고작으로, 몸이 곤하여도 이만저만하게 곤한 것이 아닌 터였다.

그래도 그는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책상 앞애가 앉아서 시집이니 소설——, 그러한 것을 뒤적이다가, 저영 못 견디게 졸려야 자리에 드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날 밤도 그는 열한시 넘어까지 깨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어 다른 때나 한가지로 공부를 위하여서가 아니다. 낮잠들을 한차례씩

늘어지게 잤다는 어린것들이, 좀처럼 자지 않고 늦도록 그에게 매어달린 까닭이다.

〈제엔장마질……. 특허면 가구, 특허면 가구……〉

가드라도 잠깐 다녀나 오는 것이지, 이것은 그저 가기만 하면 오래 하루 이틀 묵고 오기가 일쑤니——, 하고, 그는 아이가 좀체 자지 않고 보채면 보채수록에 평소에 울적한 심사까지 은근히 끓어올랐던 것이나,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두 아이를 차례로 재워 놓고 열한시 반이나 되어서 자기도 자리에 들어갔다.

자리에 누워서도 단 오 분이고 십 분이고 책장을 뒤적이고서야 잠드는 것이 그의 슬픈 버릇이었으나, 이날은 워낙이 곤하여 눕자 곧 코조차 드르릉드르릉 골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 시간이 채 못되어, 그는 다시 한껏 졸리운 눈을 부비고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꿈속에 어린것이 애타게 우는 소리를 들은 듯싶었을 때,

「애애, 애애, 좀 일어나거라. 응? 좀 일어나.»

하고, 어머니의 거치른 손이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예?」

한껏 무거운 눈꺼풀을 가까스로 비집어 뜨고 보니, 어머니는 자꾸 피로워 부비대는 작은놈의 배를 연해 한손으로 쓸어 주며,

「이게 암만해두 관격이 됐나 보다.»

하고, 일러주는데, 평생을 가난과 걱정으로만 지내온 그의 조막만한 얼굴에, 미간에 그리어진 내천(川)자가 좀더 깊고 붉은 것이, 그저 잠이 가득한 아들의 눈에도 너무나 역연하여,

「네? 관격요?」

하고, 자리를 차고 허둥지둥 일어났다.

「하필, 개가 없을 때, 이 소동이라……」

하고,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으나, 그래도

큰길거리 최 주부 약국에서 부랴부랴 구하여 온 청심환이 효험이 있어, 어린것은 신열은 쉽사리 내리지 않으나, 그래도 쉼쉼 잠이 들어, 우선 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워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급한 고비는 넘겼다지만, 제 어미도 없는 집안에, 할머니 한 분에게만 맡겨두고 공장으로 나가도 아무 불안이 없도록 쾌하지는 못하다.

열이 그저 만만치 않아 별걸게 달은 얼굴에, 이따금 떠 보는 두 눈이 기운 한푼어치 없게 쌍꺼풀이 진 것도 보기에, 애처로워 그는 옆에가 지켜 앉아서 그래, 오늘은 아주 하루 쉬리라고 진작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내의 일로 하여서 끓을대로 끓었다.

〈무어, 계집이란 출가외인이라구. 그런 말을 가지구 책을 잡을 건 아니지만두……〉

단가 살림에 어린것도 없고, 그저 제 마음대로 나돌아다녀도 관계치 않다면은 또 모를 일.

〈이건 저 하나 없으면 수다헌 식구에 손이 째구 곤란 막심할 것 빼안히 알면서……. 그래 특허면 친정이니, 온 고런년의 소갈머리가……〉

그것도 저의 부모가 금방 숨이라도 넘어간다면——, 하고, 그는 몇 번인가 숨을 험악하게 쉬어 보며, 이제 들어오거든 한마디 툭툭히 나무라리라고 별렀던 것이나 꽤 씩한 아내는 오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은, 개두 개지만, 그게 다아. 저이 부모가 잘못이지. 사둔집 형편 빼안히 알구 있는 처지에, 그래, 저 없으면 어린것은 고사허구, 제 남편이며 시동생, 시간밤 걱정일 것 생각해서, 설사 자구 간다드래두,

그래 쓰느나구, 쫓아보내야 옳을 일이지, 온, 번번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다음에는

「이것이 도부지 집안에 주장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야.»

무어 아들이 번번치 못하다 책하기보다도,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영감 생각이 새삼스러이 나서, 그래, 그러한 푸념도 나오는 모양이었으나, 어머니가 그러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대로 아이 곁에 애꿎은 담배만 빼억뻑 태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그는 추위를 재촉하려고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짖어진 지우산으로 피하며 처가로 발길을 향하였다.

가거든 들어가는 길로 한번 좀 툭툭히 따지리라고, 그는 골목을 나서며 그 생각만 하였다.

어린것 앓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없는 사이에 얼마나 앓을 줄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러한 저로서도 마음에 누우침은 있을 것이리라 하였다.

장인의 해수병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지는 않으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 남의 집 사람인 딸을 하룻밤 묵혀 두어, 남을 그처럼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알 때, 장인이고, 장모고, 자기들도 생각은 있을 터이지.

〈무어, 구태여 어린것의 병세를 과장해서 말할 것두 없다……〉

사실, 간밤에 어린것이 몸은 불타듯 하고, 기운은 통치 못하고 한참 법석일 때, 그는 꼭 어린것이 죽는 줄만 알았다.

〈허지만 별일 아니다. 별일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가 단 한시라도 집을 비워놓고 나갈 형편이나, 아니냐, 아내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 기회에 처갓집 식구를 가지고 따져야만 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처갓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빈 집처럼 소리가 없었다. 워낙이 아이가 없는 집안이라 별 소리가 있을 턱은 없는 것이

지만, 그래도 너무나 잠잠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루 그러한 것 아랑곳 안하고 마루 앞으로 갔다.

섬돌에 놓인 고무신과 노랑구두. 사내라고는 장인 한 사람뿐인 집안에, 노랑구두 신을 사람이 있을 턱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는 그러한 것에 별 의혹도 품지 않고 그는 섬돌 아래가 서서 헛기침을 한번 하였다.

「누구요?」

안방에서 묻는 것은 분명한 아내의 음성이다.

「나야.»

하고,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 위로 올라섰다.

「아!」

뜻하지 않은 일에 한껏 당황한 듯싶은 아내의 낮으나마 날카로운 부르짖음을 들으며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전연 방 안의 사태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대로 안방 미닫이를 드욱 열었다.

그러나 열자, 곧, 그는 그곳에 망연히 잠시를 서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내는 윗목에 앉아서 버선짝을 잡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물론 책잡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랫목에—, 그의 처갓집 안방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놓고 그 속에서 한참 곤한 듯, 코를 골고 있는 한 삼십 되어 보이는 남자의 존재는 참말 너무나 당돌한 것이었다.

당장은 슬퍼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분해할 것도 전연 잊고, 오직 아연할 뿐이었다.

아연하여 하기는, 아내도 일반이었다. 그는 남편이 이러한 시각에 이처럼 난데없이 이곳에 나타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겁집어먹은 눈으로, 서 있는 남편과 누워 있는 남자를 재빨리 번갈아 보고는 얼굴이 한껏 빨갰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남편된 사람이 취할 태도라는 것이 마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의외의 일에 그는 우선 놀랐고, 다음에 떠오른 감정은 분노라든 그러한 것보다도 오히려 슬픔이었다.

그는 간신히 아이가 앓으니, 곧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한 말을 남기고는 재빨리 섬돌을 내려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아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나 되는 듯싶게, 그는 마치 도망꾼이처럼 남의 눈을 피하여 비오는 거리를 거의 달음질쳤다.

얼마든지 얼굴은 달았다. 그것은 사나이로서 슬픈 일인 동시에 또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었다. 만약 한이부자리 속에 들어 있는 쉼자와 아내를 발견하였다 하는 것이면, 이처럼 그의 마음은 괴롭지 않아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쉼자는 것처럼 완전히 자리에 누워 코조차 골고 있었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것처럼 무심히 윗목에가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한없는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의 눈에도, 그 여자의 참말 남편 되는, 자기의 눈에도, 윗목에가 앉아 바느질을 하는 여인의 남편은, 결코 미닫이를 열고 서 있던 자기가 아니라, 것처럼 당당한 자신을 가지고 아랫목에가 떠억 누워서 코조차 골던 쉼자였던 것같이만 생각이 되었다.

「흥!」

어인 까닭인지도 모르게 그는 코웃음을 한번 쳐 보았으나 마음에는 울음이 샘솟듯하였다.

철겨운 곳은 비는 추근추근하게도 내리고, 길은——, 그의 걷는 길은 어디까지든 질었다…….

## 음우(淫雨)

무슨 꿈인지 한참 어수선하게 꾸고 있는 판이었는데, 꿈 속에 비 오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 오고, 뒤따라 어린아이 울음 소리가 또 시끄럽게 들리어, 나는 어느 틈에 내 아이가 잠을 깨어 것처럼 우는 줄만 여기고, 나도 그만 잠이 깨어 윗목 편을 돌아보니, 우리 —英이는 제자리에서 십 리만큼 멀리 맨방바닥에가 굴러떨어져 있기는 하여도, 그저 쉼근쉼근 잠만 잘 자고 있었고, 우는 아이는 동네서 울기로 이름난, 작은 뿔이라나, 언덕 위 토막에서 사는 인부의 끝의 놈이었는데, 정작 비는 역시 우리 집에도 한결같이 퍼붓고 있었다.

〈온, 도대체 무슨 놈의 비가……〉

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자고 난 입 속의 쓴 침을 좀더 쓰게 삼키며, 그때그때 마음 속에 일은 감정의 토막을, 그 즉시 마음 속에서 한토막의 글로 표현하여 보는 것은, 이미 나의 중학시대부터의 오랜 버릇으로, 이때도 곧,

〈——그러나 비도 이처럼 연일 즐기치게 오고 보니, 그는 이제는……〉

하고, ‘나’를 ‘그’라고까지 고치어, 화를 낼 생각도 없어졌다는 뜻을